

미국으로 간 탈북자들의 정착과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전 명 희⁺

(한동대학교)

[요 약]

최근 탈북자들이 한국 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미국 등 난민 인정이 가능한 서구사회에 정착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탈북자들의 입국이 허용된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정착지 결정과 적응 과정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지를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는 실무자 1명의 면접 자료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 및 적응에 관한 내용을 근거이론 접근방법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89개의 범주들과 19개의 상위범주를 파악하였고,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분석도 시도하였다. 연구의 중심 현상은 “정착지에 대한 자발적 선택”이었으며, 정착지의 결정과 적응 과정에서 이러한 선택에 따른 탈북자들의 적응 과정의 상호작용과 결과들이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삶의 방식이 욕구결핍의 해결과정으로서의 정착 과정을 밟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언으로는 미국 내 거주 탈북자들의 삶을 통해 한국 사회가 탈북자 적응문제에 대해 재고해보아야 할 복지적 함의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미국의 탈북자, 난민 정착, 문화 적응, 질적 연구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332)

+ 교신저자: 전명희/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대학교 311(A)/Tel: (054) 260-1452/E-mail: mjun@handong.edu

1. 서론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가 열렸다. 우리 사회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제 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의 수를 감안해본다면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유입은 한동안 증가할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사회 내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을 돕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들이 생성되면서 이들의 사회정착 및 적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지난 10년 간의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들이 박차를 가하여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의 연구들이 밝혀낸 바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다른 난민 연구들에서 보여 지듯이 국내에 들어오기 이전까지 북한을 떠나 제 3국에서 받은 외상의 문제와 정착과 관련하여 새터민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전우택 외, 2003; 김연희, 2006; 조영아 외, 2009; 김현경, 2009). 또한 사회와 문화에의 적응이라는 측면에서는 문화적 이질성, 문화갈등, 남한사회를 접한 충격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문화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새터민이 가진 욕구들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김미령, 2005; 유시은 외, 2005; 유영권, 2005; 김중국, 2007; 김현경, 2009). 최근에 와서는 새터민의 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고 있는 시점에 와있다(김영하, 2009; 전명희, 2011; 노용구, 2012).

이렇게 남한 사회는 새터민의 적응을 둘러싼 제도 뿐 아니라 연구도 한창 진행되고 있는 즈음, 최근 5년 사이 탈북자들에게는 제3국에서 남한 이외의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길이 열려져왔다. 북한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대북방송매체로서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와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의 기사에 따르면 2007년도 말부터 영국에 망명신청을 한 탈북자들이 매우 늘고 있어 2007년에는 135명, 2008년에는 170명의 탈북자에게 망명을 허용했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제3국이 아닌 이미 한국에 정착했던 새터민들의 위장 망명임이 드러나면서 2010년 이후에는 탈북자의 망명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미국의 소리, 2011. 3월 1일자). 반면 미국은 2006년부터 공식적으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후 2012년 5월 현재 총 128명의 탈북자들이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한국에 입국했던 새터민들 중에서도 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미국에 가서 살기를 희망하여 유학, 취업, 이민 등을 통해 이주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자유아시아방송, 2012. 5월 10일자).

탈북자들이 탈북을 한 후 중국에서의 생활은 복송의 위험, 여성의 경우 인신매매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이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정착지로의 이주를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2012년 봄부터 국내 및 국제사회의 거대한 움직임으로 일어난 중국 내 탈북자들의 복송반대운동은 이들의 중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반인권적인지를 조명해주었다.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수는 정확한 통계가 불가능한 상태이나 적게는 수만에서 최대 삼십만이 된다고 추산되기도 한다(경향신문, 2012. 2월 28일자). 이 중 2011년까지 2만여 명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본다면 아직도 정착지를 찾아 헤매고 있는 중국에서 떠도는 탈북자들의 수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탈북자들 가운데 한국으로 오게 된 탈북자들 외에 서구의 국가들을 선택한 탈북자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난 바가 별로 없으며, 남한이 아닌 타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삶에 대해 뉴스 등의 대중매체의 보도 외에 학술적 문헌에서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진 예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몇몇 기사들에 따르면 영국으로 위장망명한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탈북자를 2등 국민 취급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선진국에서 영어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등의 이유로 새 출발을 결심했다고 언급하며 능력의 한계와 미래에 대한 불확신 등으로 복지가 잘되어 있다는 서구행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의 소리, 2008. 3월 17일자).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들 중 일부는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받는 차별이나 편견 등이 적응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조정아 외, 2006; Jeon, 2000; Suh, 2002; Lankov, 2004). 즉, 남한에서의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차별, 부적응, 상대적 박탈감, 생활고나 교육에 따른 부담이 탈북자들이 또 다른 삶의 터전을 찾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탈북자들이 왜, 어떠한 경위로 서구의 다른 나라들로 가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왜 이들이 남한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지 않았는가를 질문을 하도록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 정착하기 위하여 이주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봄으로서 탈북자들의 정착과정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문화 적응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착할 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이주민들의 정착과 적응과정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특별히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어 생사를 건 어려움과 제 3국을 통해 여러 곳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맞이하게 되는 정착의 공간에서 그들이 적응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며, 외상 경험으로부터의 치유와 회복에 도움을 주는 보호요인과 위험 요인을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 거주하게 된 탈북자들의 삶을 질적으로 연구해봄으로 이들의 정착지 결정 및 적응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자들은 어떤 과정으로 최종 정착지인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둘째, 미국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에서 적응 과정은 어떠한가 이다. 본 연구는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과 적응”이라는 커다란 주제 하에 새로운 터전에 이른 이들의 삶의 경험을 보다 심도 깊게 파악해봄으로 향후 미국 사회에서 탈북자들이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선행연구 개괄

1) 난민으로서의 탈북자들의 미국정착 과정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은 다양한 민족의 난민 중 한 명으로서 위치하게 되므로 미국에서의 난민정착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Refugees:

- 1) 미국으로 정착한 탈북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영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위장망명한 사례가 많으나 미국은 상대적으로 난민신분에서 바로 입국한 경우와 국내에서 살다가 적법한 절차로 입국한 사례가 많았으므로 연구의 대상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이하 UNHCR)에서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한 사회적 그룹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조직적으로 박해와 고통을 당하므로 자국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UNHCR, 2003).

미국은 2006년 5월 6명의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미 1980년도에 난민 지원법(Refugee Act)이 있었으며 그동안 미국은 버마, 이라크, 베트남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난민들의 정착과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법 안에서 탈북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결정한 것이다(Chang et al., 2006). 난민 인정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UNHCR에서 난민 인정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UNHCR에서 지원국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지를 판단한 후에 미국에 있는 코디네이터에게 연락을 한다. 주로 중국에서 제 3국으로 옮겨진 탈북자들은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가기를 희망할 경우에 한국 대사관과의 인터뷰 절차를 통하여 미국으로 입국하게 된다. 미국 내에는 현재 정부 위탁으로 운영되는 10개의 난민 정착 기관(Refugee Resettlement Agent)이 있고 이 기관들에 의하여 난민정착과정이 진행된다. 그러나 지역 차원에서는 200개가 넘는 비영리 단체들이 각 지역에서 온 난민들을 돕는 일에 협력하고 있다. 제 3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과정까지는 국제이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이하 IOM)에서 이들이 무사히 미국에 입국하여 난민정착 기관의 코디네이터와 만날 수 있도록 에스코트를 해준다²⁾.

난민들이 미국에 처음 입국하면 1년 동안 난민 비자로 있다가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처음 들어올 때에 대부분 정착 지역의 난민 기관과 연결되어 코디네이터로부터 이런 정보를 전해 들어야 하며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 획득이 이루어지기까지 집중을 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이민자들은 1996년 복지정책 개혁과정에서 난민으로서 누리던 복지혜택을 상당히 잃은 상태이다. 난민으로서의 혜택은 8개월간의 의료혜택 및 정착과정에서의 주거 및 생활비 지원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국의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푸드 스탬프(food stamps)와 의료보장(Medicaid) 등의 혜택도 미국 체류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받기가 어려운 상태이다(임효진, 2010). 현재 공식적 난민정착지원 기관 중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특화된 기관은 없는데, 그 이유는 버마, 쿠바, 베트남 등의 다른 난민들과 비교할 때에 탈북자들의 난민 입국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상태이며 그 역사도 짧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는 한인 비영리 단체나 이민 교회 등을 중심으로 미국 내 정착 탈북자들의 지원과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다.

2) 탈북자의 문화 적응과정

난민 이주자는 자국의 상황으로 인하여 밀려나온 개인을 의미하며,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주가 이루어지고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며, 자국과 이주과정에 상당한 외상경험이 있다는 점 등에서 일반적 이주자와는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문화적응 관한 연구들에서는 이주민이나 일시적 체류자 등과 달리 난민의 경우 문화적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2) 난민지원 비영리 단체는 www.refugeeworks.org, 국제이민기구관련 정보는 www.iom.int을 참고함.

에 가장 어려운 집단으로 분류되어 왔다(정진경·양계민, 2004; 김현경, 2009). 그 이유는 난민이주 전 과정에서 일어났던 '인권'에 반하는 충격사건 경험(Human rights violations Traumatic experiences)들이 그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문화 적응의 문제를 넘어서는 총체적 적응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Sam and Berry, 2006). 이주민들은 새로운 국가에 도착해서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는데, 공황상태, 테러공포, 슬픔, 절망, 악몽 등에 시달리게 되고, 확신감의 상실로 인한 의존성, 무기력, 수동성 뿐 아니라 우울증, 낮은 자긍심, 소외감, 불안감, 관계갈등,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 정체성 혼미 등을 경험하게 된다(Williams and Berry, 1991).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사회에의 정착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문화적응 이론을 체계화하는데 공헌한 Berry(1986)는 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국가로 이주하면서 경험하는 문화 간의 접촉을 문화 적응(acculturation)이라고 하고, 문화적응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문화적응 스트레스라고 정의 내렸다. Berry(2001)의 연구에 의하면, 원문화 및 새문화와의 동일시 수준의 높낮이에 따라서 통합(integration), 분리(separation), 동화(assimilation), 주변화(materialization)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통합'이란 새로운 문화와 상호작용 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이전 문화에 가치를 두게 되는 것을 말하며, '동화'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본인의 원래 문화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Sam과 Berry(2006)는 난민들의 문화적응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국가의 문화적 수준(culture/group level)과 심리적/개인적 수준(psychological individual level)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있으며, 그 과정을 출발 전 단계(predeparture), 비행(flight), 수용단계(asylum), 청구과정(claimant period), 정착 과정(settlement period), 그리고 적응(adaptation)의 6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 소개된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결과는 새터민 청소년의 정체성 변화 과정에 대하여 '동화' 과정에 4개월, '분리' 과정에 4개월~1년, '주변화'에 1년~2년, 그리고 '통합'이 되는 데에는 적어도 3년 정도 걸린다고 제시하였다(금명자 외, 2004). 이들은 전반적으로 U자형의 적응 정체감 변화과정을 겪게 되며 통상적으로 한국에 와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문화 적응에 있어서 통합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적응유연성이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 고통스런 현실 속에 처해있던 탈북자들이 문화 적응을 통한 정체감을 형성하며 그 이전의 삶과 정착 이후의 삶을 통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에 입국한 지 7년이 넘는 장기 정착자들과 남한사회의 빈곤층과의 수준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새터민의 가구 소득은 남한주민의 약 70% 정도로 낮았고, 절대 빈곤선 100% 미만은 남한주민의 2배, 절대빈곤선 50%미만 가구의 비율은 남한 비교층의 8배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 통합과 적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남기고 있다(김연희 외, 2010). 탈북자들이 물질적·정신적 측면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부적응 즉 주변화(Marginalization) 상태에 오래 머문다고 한다(김미령, 2005). 그러나 김태동(2010)의 연구는 희망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탈북 대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결과로 탈북 대학생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고는 있으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대학생활을 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자기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을 때에 문화적응 상태, 즉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주

과정에서의 경제적 적응도 이주 초기 하락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에 이주 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U자형의 적응형태를 가진다고 볼 때에 보다 장기적인 연구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김연희 외, 2010).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한 연구들이 매우 드문 실정이다. 전명희 외(2010)의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신앙적 과정에 대한 경험 연구에서 보면 기독교인 탈북자들은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한국에서 자신의 기독교 신앙이 식었다'라고 말하며 신앙적인 슬럼프를 경험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즉, 정착역에 도착하여 목적이 달성되자 공허감과 목표 상실의 상태에 맞닥들이게 되었고, 한국의 교회생활에서 경험한 '실망'과 '거리감'이 컸으며, 한국 사회의 차별과 편견이 이들이 영국으로 가게 된 동기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이렇듯 한국 사회가 가지는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현상에 대하여 경제적 통합을 포함한 정책적 차원의 문화적·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착지원이 필요함이 강조하고 있다(윤인진·이진복, 2006; 최승호, 2010). Suh(2002)의 연구에서는 탈북자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요인들 중 하나로 남한 사람들의 편견을 들고 있다. 탈북자들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이들이 자신을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소수자로서 보면서 '주변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한다(권나혜, 2006). 전우택 외(2011)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에서는 탈북자들이 난민으로서와 유랑민으로서 오래 살아온 결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거나 한국에 들어와서도 적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 정체성 유형 중 '탈국가적 개인주의자' 유형의 경우에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보다는 한국을 자신이 살 나라의 한 곳으로 보고 정체성 고민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김현경(2009)은 탈북자들이 낯선 땅에 대한 거부감이나 생소함을 넘어서 '한국 생활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 형성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정착지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도 적응에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종합하여 본다면 탈북자들이 일반 이주민과는 달리 난민이며 유랑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이들이 경험하고 겪었던 북한에서의 삶의 궁핍함, 탈북 과정과 중간 정착지에서의 박해 및 학대, 인권유린과 극심한 안전위험 상황 등으로 인해 최종 정착지에 이르렀을 때 적응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정착지로 선택하였을 때에 한국인으로서의 자신들의 삶의 정체성과 새로운 문화를 가진 정착지 특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게 되는지를 면밀히 파악해보는 것은 앞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될 탈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선정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적응과 회복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는 먼저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고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비교적 연구대상으로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은 미국 내 거주 탈북자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관련자들을 통해 한 두 명을 소개받은 후 연결하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과정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제3국에서 난민으로 미국에 바로 입국한 사례와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다가 미국에 살기 위해 이주해온 사례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미국 입국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자는 최종적으로 8명을 인터뷰 할 수 있었고, 미국의 난민정착과정과 관련된 정보와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정착 기관에서 일하는 담당자와 보조적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 인적사항

사례	성별	연령	현재 하는 일	탈북시기	정착 지역 및 정착 시기
A	여	30	영어공부/일용직	2007년	탈북-중국-태국-미국에 입국
B	여	50대	무직(직업훈련 중)	2005년	탈북-중국-제3국-미국에 입국
C	여	27	유학 중	1999년	탈북-중국-제3국-한국-미국으로 옴
D	남	38	회사원	2004년	탈북-중국-제3국-한국-미국으로 옴
E	여	32	가정주부/자녀양육	2004년	탈북-중국-제3국-한국-미국으로 옴
F	여	27	회사원	2005년	탈북-중국-제3국-미국에 입국
G	여	50대	자영업	2000년	탈북-중국-한국-미국으로 옴
H	여	32	영어공부/일용직	2004년	탈북-중국-제3국-한국-미국으로 옴

2) 연구 내용 및 자료수집 과정

자료 수집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가장 주된 질문으로 가지고 있던 내용은 “이들은 왜, 어떻게 미국으로 오게 되었는가?”라는 질문과 “미국에서의 그들의 삶은 어떠한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몇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도 각각의 북한에서의 삶, 중국과 제3국에서의 삶, 미국 입국 과정, 현재 생활 정도 등을 연대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보통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한 번의 면접으로 불충분한 경우 전화나 재면접 등을 통해 내용을 점검하였다. 연구에 임하기 전에

고지된 동의서(informed consent form)에 서명을 받았으며, 본 연구 참여의 자유 의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 내용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연구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의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연구에 임하였다. 탈북자들은 그동안 입국과정에서 조사과정에 많이 노출되었던 경험이 있으며 혼자서 연구자를 만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면접을 할 다른 대상들과 함께 만나서 그룹 면접의 형태로 진행된 경우가 한 번 있었으나 내용이 불충분한 면접자의 경우에는 라포가 형성된 이후 개별적으로 만나 내용을 더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다.

3) 자료 분석

면접은 모두 녹음되어 필사본으로 만들어졌으며 자료 분석은 근거이론의 분석 절차를 따랐다. 근거이론은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거나 혹은 기존의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해 실제적 분야를 탐색하는 연구방법론이다(이동성·김영천, 2012). 특히 경험적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해내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어떤 현상에 대해 귀납적으로 근거이론을 발전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본 연구는 서구사회로 가서 정착한 탈북자들의 적응이라는 상당히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과정을 실제 이론으로 구축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자는 10년 이상 질적 연구를 해왔으며, 미국 생활의 경험과, 국내에서의 탈북자 관련 상담 경험 등을 통해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지속적 비교분석(Constant comparative method) 방법에 의하여 질문하기와 비교하기를 통해 자료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Glaser and Strauss, 1967).

질적 연구에서 자료의 엄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에 있어서 Denzin(1978)이 말한 자료의 삼각화(triangulation)를 시도하여 심층면접, 관찰조사, 기존 관련 문서들, 그리고 보조 인터뷰 등을 이용해서 수집 자료가 풍부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분석한 자료 분석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적 연구 훈련이 되어 있는 동료 연구자 1인과 코딩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인적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과정을 가졌으며, 1차적으로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현재 탈북자 사역을 하고 있는 담당자를 만나서 내용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확인하는 보조면접 절차를 거쳤다.

4. 연구결과

8명의 탈북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총 89개의 하위 범주와 19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 되었다. 본 연구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분석방법 중 개방코딩과 축코딩 및 패러다임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정리해보았다.

<표 2> 패러다임 모형에 따른 범주화

패러다임	상 위 범 주	하 위 범 주
인과적 조건	북한에서의 삶의 수준	경제적 곤란, 굶주림/집안몰락/정치적 이유로 고통
	탈북 시기	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탈북 이유 및 동기	생존 욕구/북한의 현실 인식 및 불만/개방세계에 대한 동경 및 문화적근성 용이
맥락적 조건	탈북 당시 북한 현실	탈북자가 많아짐/돈 있으면 살기 편한 북한/가족이 탈북 하여 돈 보내줄 경우 살만함
	중국 체류과정에서의 안전 문제	언어적 어려움으로 두려운 상태/공안과 신변안전에 대한 두려움/검열에 대한 극심한 공포
	중국에서의 삶	일을 할 수는 있었으나 안전확득 실패/조선족처럼 행세하면서 삶/안전문제로 버틸 수 없음
중심 현상	정착지에 대한 자발적 선택	남한에 대한 부정적 견해/남한 정부에 대한 신뢰부족/신세계에서 새롭게 시작/차별받지 않는 곳에서 시작
중재 조건	개인적 성격특성	자존심이 강한 성격/호기심이 강한 성격/독립심과 자기주장이 강한 성격
	가족적 요인	가족과의 관계 정도/가족의 탈북에 대한 견해/가족 구성원들의 탈북 여부/북에 남겨둔 가족 여부/향후 가족들의 탈북 의사 정도
	북한 사람의 집단 특성	열등의식과 자존심/방어적 태도: 경계태세 및 과도 반응/정서성의 결여 및 부족
	정착지역의 언어/문화적 특징	차별과 편견의 존재/다양성이 추구되는 사회/북한에 대한 고정적 이미지
작용/상호작용	문화 충격	마음 둘 곳 없는 막막함/이해되지 않는 문화/통하지 않는 언어
	정체성 혼란	적응이 안 된 느낌/계속 떠돌고 있는 느낌/정체성 혼란(나는 왜 여기에 와있나)
	현실 수용	경험을 통한 수용/북한 사람인 것에 대한 수용/사람이라는 보편성과 실존성 이해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잠시라도 고삐를 늦추면 살 수 없음/각오가 되어야만 살 수 있음
결과	삶의 의미 귀인	고생의 의미 이해/집안 식구들과 만나 밥 한끼 먹는 것/착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삶 추구/안정적인 삶 추구/정의와 공평 등에 대한 관심에 자신의 고통이 쓰일 것이란 희망
	현재 적응 상태 정도	현재의 생존 상태를 벗어남/아직도 정체된 느낌
	문화적 다양성 획득/실패	문화적 다양성 획득/문화적 다양성 획득 실패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북한에서의 삶의 수준', '탈북을 결심했던 시기', '탈북의 직접적인 동기'가 인과적 조건으로 범주화 되었다. 즉, 탈북 할 수 밖에 없었던 북한의 상황이 인과조건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대상자들은 평양에서 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함경도 출신으로 비교적 탈북하기에 수월한 지역에 살고 있었다. 탈북 시기로는 1990년대 후반 북한의 식량난이 가장 심각했던 소위 '고난의 행군' 시절을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고 굶어죽을 지경에 되어서 대량으로 탈북 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북한의 현실을 인식하고 북한 생활에 대한 불만이 생기며, 생존을 위해서 탈북 한 사례들이 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에는 이미 자본주의 논리가 북한에 상당히 영향을 주어 소위 장마당을 통한 자본주의식 거래방식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탈북한 지 총 2~3년이 지나지 않은 사례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생존의 이유보다는 보다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이유로 탈북을 결심하였다고 하였다. 즉, 북한에서의 삶이 그리 궁핍하지도 생존의 위협을 받지도 않았으나 살면서 소련이나 중국 등 상대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으며 다른 나라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처음부터 한국으로 오기보다는 다른 서구세계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2) 중심 현상: 정착지에 대한 자발적 선택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오지 않고 왜 미국에 가게 되었는가? 자신의 선택인가 아니면 불가피한 결정이었는가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면접에 응한 탈북자 8명 중 4명은 중국과 제3국을 거쳐 바로 미국행을 선택한 경우였고, 나머지 4명은 우선 한국으로 입국하여 일정 기간의 삶을 살다가 미국에서의 삶을 선택한 경우였다. 7명 중 1명만이 아직 유학생 신분이었다고, 나머지 7명은 미국에서의 장기 정착을 결정하고 영주권을 받았거나 신청하여 진행 단계에 있었다. 이들은 더 이상 안전문제로 중국에 머물 수 없었고 소속감과 자격, 보호와 지위 등을 필요로 하였다. 이들이 미국에 오게 된 경로는 다르지만, 분석 결과 '자발적 선택에 의한 미국행'을 결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미국에 온 것을 자신의 선택 선택으로 보고 있었으며, 하위 개념으로 네 가지가 도출되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 '남한 정부에 대한 신뢰부족', '신세계에서 새롭게 시작', '차별받지 않는 곳에서 시작'이다.

“솔직히 저는 한국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사람 차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는 심지어 서울 말씨 아닌 전라도 말을 쓰는 사람도 차별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한국에 가본 적은 없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 돈 벌러 갔다 온 사람들이 딱 '너무 차별이 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사례 C)

“저희 (중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이 한 200명은 왔다 가신 거 같아요. 거기 목사님뿐 아니라 집사, 권사, 장로 뭐 잔뜩 데리고 오시는데 오시면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가실 때는 뭐 뭐 도와주겠다 그래요. 진짜 밥이 없어서 죽을 해먹으면서 고추장 하나로만 2개월을 살았거든요. 햇빛도 못보고 옷도 없어서 애들이 너무 자꾸 손빨래 하니까 다 찢어지고 그 정도 된 것을 다 보았거든요. 가면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별거를 다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수천 번 한거예요. 그리고 한국 가신 분들 중 실천하신 분은 세 명 밖에 안되세요(사례D)”

몇몇 사례들은 중국에서 머무는 동안 한국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었으나 미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에 가는 것을 기다리다가 공안에 발각되어 북송되어 1년 반이나 생사의 고생을 했던 사례(사례B), 미국이 아직 난민을 받지 않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고자 미대사관 앞에서 수도 없이 기다렸던 기억(사례C), 태국 대사관에서 신원확인이 끝날 때까지 한국으로 가는 이들보다 5개월이나 더 머물렀던 기억(사례A) 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즉 신세계로 가고자 하는 동기가 매우 높았다. 이들은 성격적으로 독립적이고 역경을 헤쳐 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는데 이와 더불어 주변 사람들의 정보력을 통해 한국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서구 사회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한국은 안가고 캐나다나 뭐 영국이나 아님 미국이나 세 개 나라 중에서 가리라 이렇게 결심했거든요. 다 똑같은 난민 이민국이니깐... 다 뭐 누구나 없이 자기 나라 떠나가지고 멀리 사는 사람이니깐... 다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좀 백인하고 차별이 있지만 다 똑같은 세계 나라 사람이 모여서 그런 스트레스는 없을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사례 A)”

사례 D는 중국에서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먼저 입국한 후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어느 정도 생활을 한 뒤 결혼도 하여 미국에 일자리를 얻어 정착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 사례 역시 처음부터 미국으로 가고 싶어서 노력을 하였으나 잘 안되었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도미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남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한국으로 갈 경우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고향을 떠나왔으니 아예 새로운 땅에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이들이 느끼는 한국 땅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평안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요. 중국에서 굉장히 그 미국에 대한 어떤 열의가 강해요. 그 쪽으로 가겠다. 아니 한국 이외의 나라로 가겠다. (왜 그럴까요?) 차별 같은 것도 있고, 직장 취득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때 또 북한 정권하고 가깝게 협력했던 앞의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가면 우리 신상을 다 북쪽에 옮기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었어요.... 다 이젠 뭐 고향 떠나왔는데 차라리 풀 안보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자. 김정일이나 이런데 얽히지 않고 새롭게 새로운 땅에서 해보겠다... 일단 중국에 나온 사람은 뭔가 새롭게 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다보니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데 그 가운데 미국이 굉장히 발전되었으니까요(사례D)”

“이제 불안한 거예요. 사건들이 자꾸 터지잖아요. 남한이랑 북한 사이가.... 나라가 합쳐지거나 정복되거나 하면 희생양이 있잖아요. 항상 그런 부류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 희생자가 꼭 탈북자여야 될

것 같은 느낌? 심히 불안한거예요. 내가 그런 수모까지 당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고생해서 와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존재가 되면 이걸 좀 아니다 싶어서, 외국을 나가려고 했었죠(사례 C)”

“그게 차이인 거 같아요, 자기가 선택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정착지를 결정 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선택했던 탈북자들은 한국에 가면 집도 주고 돈도 준다지만 북한 사람들이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소문, 정치적으로 한국에 있는 것에 대한 불안, 어차피 난민으로 이민자로 살아가야 한다면 오히려 다문화권이 낫지 않을까 하는 서방세계에 대한 기대 등으로 정착지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발적 동기에 의해 미국으로의 정착을 선택하였기에 이러한 동기가 삶에 적응하는 태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3)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은 그 현상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사례별로 맥락(context)적 조건을 가지게 된다. 맥락이란 어떤 현상에 속하는 특정한 속성으로서 차원의 범위에 따라 어떤 현상에 속하는 사건들의 위치를 의미한다(Strauss and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탈북과 정착 과정에 영향을 주는 맥락 조건으로서 ‘탈북 당시 북한의 현실’, ‘중국 체류과정에서의 안전 정도’, ‘중국에서의 삶의 질정도’가 범주화되었는데, 이 조건들이 정착 결심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중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서 구지 중국을 뜨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 사례에서는 정말 안전만 아니라면 중국에서 살던 것이 좋았다고 하였다. 중국에서의 한시적 체류 생활을 종결하고 정착지로 가는 과정은 안전에 대한 극심한 위협으로 더 이상 중국에서 버틸 수 없게 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즉, 소속감, 자격, 나라, 지위 등에 대한 필요성을 서서히 인식하고 상황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을 접하면서 정착지로의 이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 중재조건

중재조건이란 현상과 관련된 구조적 상황을 말하며, 구조적인 맥락 내에서 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선택에 의한 정착지 결정 후 미국에 입국한 것을 중심 현상으로 보고 미국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과정을 작용과 상호작용으로 보았다. 중재조건으로는 현상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을 중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념들을 파악하였고, 이를 다시 상위범주로 구분해 보았다. 특히 ‘개인적 성격 특성’, ‘가족적 요인’, ‘북한 사람의 집단 특성’, 그리고 ‘정착 지역 언어/문화적 특징’ 등이 중재조건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성격 특성과 건강성 등은 정착지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자신들에 대해 “독립적이고 외로움을 덜 타고 홀로 역경을

거쳐 온 강인한 인간상”으로 스스로를 파악하였다.

“저는 도전의식이 되게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뭐 하고 싶은거 못하면 병나요, 그리고 어차피 미국에 온 이상 모든걸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사례E)”

또한 ‘가족적 요인’들로는 가족과의 관계 정도, 가족의 탈북에 대한 견해, 가족 모두 탈북 여부, 복에 가족을 두고 왔는지 등이 정착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족이 잘 지내고 있거나, 함께 탈북 했거나 하여 가족문제에 근심걱정이 없는 것은 상당한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가족이 현재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거나, 가족의 생존을 위해 돈을 부쳐주어야 하거나, 가족의 탈북을 도와야 하거나 하는 등의 가족 내부의 불안정 요소가 클수록 적응과정에 위험요인(risk factors)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았다. 어떤 사례의 경우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고 라도 위안을 삼지 않으면 미쳐버릴 거 같다”라는 표현을 하였다.

“요즘은 가족들과 전화 받은 지 딱 한달 됐어요, 그 때 제가 돈을 부쳤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돈을 부쳐 준다고 많이는 못 부쳐주지만 그래도 부쳐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시름 놓이는 거예요, 저의 근심덩어리가 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나만 살면 되는데 솔직히 미국에서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쉽잖아요(사례 A)”

한편 북한 사람들이 갖는 자신들만의 집단적 특징(북한 체제의 영향과 탈북과정에서 생긴 면 모두)이 정착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맞물리는 정도에 따라 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들이 스스로 규정하는 자신들의 특징들로는 ‘열등의식이 있다’, ‘자존심이 강하다’, ‘경계태세를 가지고 과도한 반응을 보인다’, ‘덜 정서적이다(마음이 딱딱하다)’ 등을 나타냈다. 이러한 북한 사람으로서의 집단적 특징은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고 문화적응을 획득하려고 할 때에 장애 요소가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착지역의 언어/문화적 특징은 탈북자들의 정착지 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들이 파악한 특징들을 개념화 한 결과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곳’, ‘다양성이 추구되는 사회’, ‘북한에 대한 고정적 이미지’ 등이 있었다. 특히 미국이라는 정착지에 대한 특징을 탈북자들은 한국과 비교하여 많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 온 탈북자들 뿐 아니라 한국을 거치지 않고 온 탈북자들도 한국에 대하여 얻게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유추하여 비교하며 미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5) 작용/상호작용

작용/상호작용은 중심 현상인 정착지 선택 후 적응을 위해 취해지는 작용과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된 작용과 상호작용으로 ‘문화 충격’, ‘정체성 혼란’, ‘현실 수용’,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개념화를 하였다.

제3국에서 난민 신분으로 미국으로 바로 온 사례들은 미국생활에 대한 문화 충격과 어려움들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 미국에 와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고 어려운 생활들을 하게 되며 머릿속에 그리던 미국과 다른 너무 시골 같은 지역으로 보내지면서 실망도 하였다. 첫 정착의 느낌으로는 '마음 들 곳 없는 막막함'을 느꼈다. 언어가 안 통하고 문화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점, 집세는 비싸고 난민 정착 지원이 충분치 않은 점, 영주권이 확보되기까지 생존 모드로 살아야 하는 점 등이 이들이 접한 첫 1년 정도의 생활이었다.

“처음에는 하... 정말...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알몸이었잖아요. 중국에서 올 때 다 못가지고 오니까. 배낭 하나 챙겨갖고 왔어요. 진짜 필수적인 것만. 그리고 태국에 몇 달 있다 보니 그래도 옷을 좀 샀어요. 딱 와서 보니 주머니에 돈 솔직히 없지, 비행기 탈 때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도 안되니 어디 가서 뭘 사야 하는지도 진짜 모르겠구요. 버스 탈 줄도 모르고, 그래서 걸었어요. 계속(사례 A)”

“저희가 온 후에 온 탈북자가 있는데 중국에서 바로 제3국 통해서 오셨어요. 북한에서 탈북한 지 얼마 안 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착하면서 겪었던 일, 생각했던 것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힘들어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해줬는데, 어른이신데 저한테 전화하셔서 울은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새벽 6시에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K주로 가셨는데 저한테 전화 오신 거예요. 누구 없냐고... 그 새벽에 내가 교회 전도사님 전화번호 아냐고 하여 대신 전화를 해줬어요. 그 분이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무 것도 안주시고 오시냐고... 밥 먹을 수 있는 것이라도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 분이 '돈이 없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북한 사람에 대해서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구나. 그분은 지금도 갈팡질팡 사시는 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은행이 필요하니까 은행 만들어야 하는데 영어를 모르니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분은 그런 거 자체도 모르니까.(사례 F)”

반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언어만 다르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고 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이미 새로운 곳인 한국에서 한번 정착하며 적응한 경험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갑작스럽게 오기보다는 계획 하에 도미하였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들이 대부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를 비교하며 정착에 있어서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연구 대상자들은 미국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정착 적응과 관련된 내용에서 미국의 좋은 면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편 이들은 정체성 혼란을 계속해서 겪고 있었다. 너무 여러 곳을 지나면서 살아온 그들의 삶의 여정 후 정착지에 도착하였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된 느낌,' '계속 떠돌고 있는 느낌,' '여기에 왜 와있는가' 등의 정체감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수용으로 이루어졌는데 자신들의 경험의 폭이 작음을 이해하고, 자신들이 북한사람임을 벗어날 수 없음을 수용하였다. 한편 실존적으로 '사람 사는 데가 다 비슷하구나'라는 지혜를 터득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용/상호작용은 미국 입국 기간과 한국을 거쳐 왔는지 아닌지에 따라 그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생활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하여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다른 이민자들의 생활과 같이 아직 미국사회 특히 주류사회와의 경험이 매우 부족하고 미국 시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굳은 각오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다.

〈표 3〉 미국에 온 탈북자들이 인식하는 한국과 미국에서의 정착적응 관련 견해

	한 국	미 국
정착 과정	정착금 제공 거주지 제공 국민으로서의 지위 적응과정 제공(하나원, 하나센터)	정착금 거의 없음 구직 전까지 한시적인 지원 난민 비자 1년 후 영주권 일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짐
언어	언어가 같아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억양과 단어의 차이 느낌	언어습득의 어려움 영어교육이 절대 필요한 상황
문화	단일화된 문화 속의 이질감	다문화와 다양성 속의 편안함
한국에 대한 인식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곳 북한사람일 수밖에 없는 곳 경쟁의 사회 기대심리, 의존성	억누르는 것이 없는 자유 경험 감정적 고달픔 및 외로움 죽어라 뛰어야 살 수 있는 곳 자립심, 도전정신
민간 지원에 대한 인식	돈은 주나 마음은 잘 안 준다	필요한 것을 준다. 기대할 곳 없이 홀로 서야한다
학업과 관련된 인식	나이에 따른 문화(ageism)로 인해 동년배가 아닌 사람들과 공부하는 것의 어려움	학교 문이 열려있다(배움의 기회). 이 나이에 또 부끄럽지 않구나

“저는 내가 모든 걸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든지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나를 맞춰서 이 세상에 살게 아니니까 다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나는 그냥 베이비이다 어린 아기가 여기 온 지 8개월 밖에 안 된... 그러니까 내가 모두 배워야 된다.(사례 A)”

6)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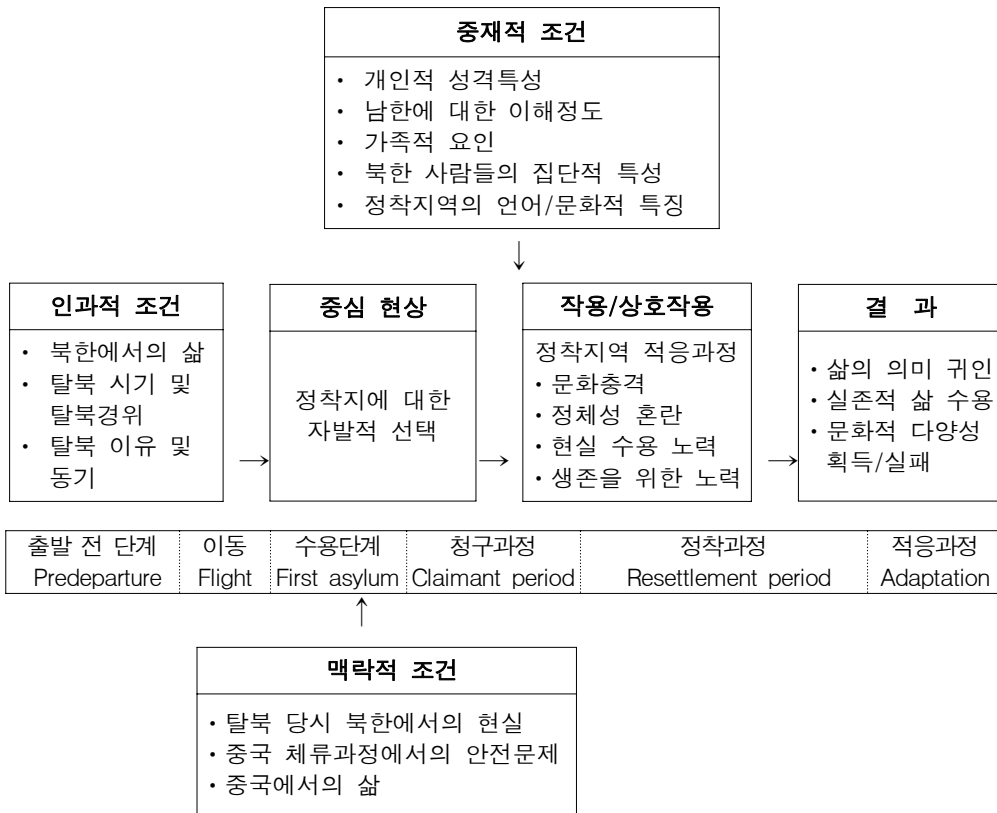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미국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얻게 된 결과들로는 '삶의 의미 귀인', '문화적 다양성 획득/실패'로 범주화되었다. 생사를 걸고 사선을 넘어 정착지를 선택한 탈북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미부여를 하고자 하였다. 때로는 생존으로 인해, 가족 때문에, 행복한 삶을 추구하여, 안전을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등등 삶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귀인을 하고 있었다.

사례 B는 미국에 막상 왔을 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언어와 문화가 통하지 않아 어려웠을 뿐 아니라 50대 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히 극심히 약화되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미국의 노인들의 삶을 보고 문화충격을 받았으며 보다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간병인 교육을 받아 첫 직장에 출근한 것이 미국에 온 지 3년이 지나서였다. 이들은 탈북 후 건강의 악화, 무기력감 등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자 하는 강인함이 있었고, 자유의 나라

미국에 온 것을 잘한 것으로 여기고자 하는 굳은 신념으로 견디었다.

“미국에 오니까 연세 많은 분도 쭈글쭈글한 분도 막 화장하고 다니잖아요...북한에는 50이면 이제 죽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예요. 환갑을 세고 돌아가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그러니 50이 넘으면 할머 나라 했어요. 그러니 저도 자꾸 아프니까 늙은 행세를 했는데 요즘 일하다 보니 그게 아니구나. 아직 젊었지...(사례B)”

“한국 가면 전세방 주고 직장도 주고 어쩌다 힘들다 그냥 그게 쉽게 포기할 수도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은 누가 억누르는 게 없어요.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어디까지나 내가 세워 나갈 수 있는 곳 같아요. 나만의 길이 있어요. 그걸 내가... 저도 여기 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힘들게 온 길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도 인간으로 한번 태어나가지고. 어디까지인가. 나라는 인간이.. 뭐 이런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 많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사례 A)”



<그림 1>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미국 내 탈북자들의 정착과 적응

이들은 탈북 후 건강 악화, 무기력감 등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자 하는 강인이 있었고, 자유의 나라 미국에 온 것을 잘한 것으로 여기고자 하는 굳은 신념으로 견디었다. 탈북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통합하고자 노력하고 현재 미국에 와있는 것에 대한 안도감과 감사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힘든 삶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삶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7) 이야기 윤곽 : 욕구결핍의 해결과정으로서의 정착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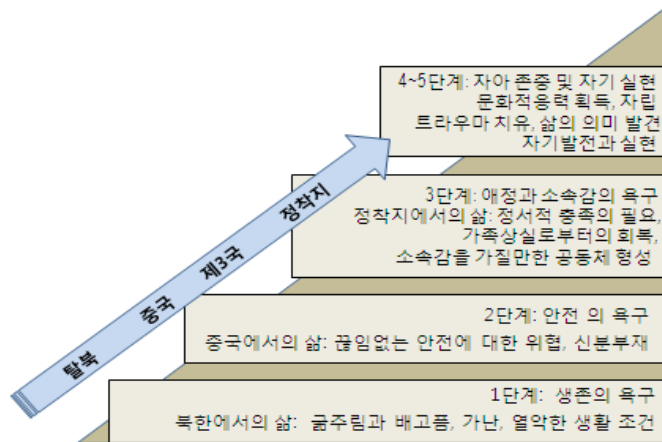
탈북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맡길만한 최종 정착지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본 연구자는 분석 과정을 통하여 탈북자들이 탈북 하여 정착하고 적응하기까지의 욕구결핍 및 해결에 관하여 Maslow의 위계적 욕구이론이 그 이해를 수월하게 해줌을 알 수 있었다³⁾. 그들이 지나온 삶의 여정은 삶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이 되지 않는 곳에서 이를 충족받기 위해 따라온 발자국이라 볼 수 있다.

먹고 살 길이 없어 생사를 걸고 나온 여정의 끝에서 이들은 이제 적어도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생존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의 위협을 받지 않는 곳에 발을 디뎠다. 북한에서의 삶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는 곳이었으며, 먹고살 거리는 있었어도 편안하게 살 수 없는 피폐한 삶의 경험들이 있어서 그 곳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온 고향을 등지고 도망치다시피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점을 생각할 때에 이는 자의적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생존을 건 사투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생존 욕구는 거의 해결이 되었으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 당장 공안에게 붙잡혔을 때에 죽음과 수용소를 연상시키는 복송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호구조차 없는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없는 삶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인신매매의 위협과 착취, 폭력 등이 그들의 삶을 위협하였다. 만약 중국에서 안전하게 신분보장만 될 수 있었다면 중국에서 계속 살았을 것이라는 탈북자의 말처럼 중국에서의 삶은 굶어죽을 어려움이 아니라 안전의 위협으로 한 시도 평안할 수 없었다. 이들이 선택한 정착지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적어도 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최하위 욕구가 보장받는 곳이어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미국으로 온 탈북자들은 한국을 떠올릴 때에 안전, 소속감, 자아 존중감 등의 욕구 등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가에 대하여 부정적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즉,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류 시민으로 취급받는 차별 등이 존재할 경우 한국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기에 어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한국에서 정체감을 가지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사랑받고 성장하여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등이 충족

3) Maslow(1943)는 인간이 가지는 욕구가 위계 계층적으로 충족됨을 설명하면서 가장 하위의 욕구인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로부터 시작하여 안전의 욕구(safety needs),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love and belongingness needs) 등이 충족된 후에야 자아존중(self-esteem needs)의 욕구 및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욕구이론은 최근에는 상위적 욕구를 더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며, 생존모드(survival mode)가 아닌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되지 않을 때 더 큰 좌절과 방황을 할 수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안정된 삶에 더 초점을 맞추었고, 이들은 미국이라는 신세계이자 다문화 사회는 이러한 자신들의 삶이 비교적 있는 그대로 수용되고 어딘가에서 자리매김하고 살 수 있는 곳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림 2〉 위계적 욕구 이론에 비추어본 탈북자들의 욕구이해

본 연구는 “자발적 선택”을 중심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선택이 자유롭지 않고 생존을 위한 삶을 유지해오던 이들에게 있어서 최종 정착지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삶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기-가치감, 자율성, 희망 등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면접을 하는 내내 이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스스로 선택한 삶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비장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였다. 미국으로 갔다는 사실에는 ‘비자발적 삶’에서 ‘자발적 삶’으로의 변형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 내포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연구자가 만나본 한국에서의 새터민들이 때로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간주되고, 스스로도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에 비한다면 이들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망망대해를 건너 온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회의 나라임을 확신하면서 홀로서기를 하고자 자신을 세우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아직 정착기간이 길지 않는 이들의 태도는 주류 문화에 동화(assimilation) 되고자 하는 상태로 볼 수도 있다. 미국에 입국한 지 1~3년 미만의 탈북자들 이었으므로 이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더 이상 생존의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한 필사적 노력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정착한 곳에 가서는 좀 더 배우고, 좀 더 공부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추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과연 이 새로운 사회의 한 명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Berry(2001)가 언급한 난민정착과정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 단계인 적응과정이 포함되었다기보다는 정착 과정까지를 연구내용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이들의 문화 적응 과정과 적응의 결과를 보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미국으로 정착한 탈북자의 정착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고, 근거이론 접근방법에 의하여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들을 해볼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정착과정에서 “정착지에 대한 자발적 선택”을 중심 현상으로 보았으며, 미리 계획된 선택에 의해 미국에 정착하게 된 이들에게 있어서 미국은 희망의 땅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에서 살고자 했던 중심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들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 ‘남한 정부에 대한 신뢰부족’, ‘신세계에서 새롭게 시작’, ‘차별받지 않는 곳에서 시작’ 이 개념화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편견과 선입견 등은 한국을 선택하는데 부정적 견해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의 지원은 어느 정도 적절하나,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선입견과 편견에 의한 차별이라는 연구들이 있어 왔으며(채정민·김종남, 2004; Suh, 2002),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기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현상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윤인진·이진복, 2006). 김현경(2009)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낯선 땅에 대한 거부감이나 생소함을 넘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한국생활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 형성되고 남북한 통합적 태도가 형성된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문화 적응과정을 충분히 경험하기 이전까지는 차별과 편견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 문화가 그동안 단일 문화적 요소가 강하였기에 북한에서 온 이들을 포함한 소수자들에 대한 배타성이 강해왔으므로 같은 민족이지만 여러 나라를 거쳐 살아온 탈북자들을 다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적 적응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승호(2010)는 새터민의 사회통합방안에 대해 연구에서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정책적이며 제도적 차원에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포괄적인 지원을 해온 것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문화 차이와 괴리감 등의 내적 사회문화적 통합이 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제는 새터민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정부주도적이기 보다는 지역 정착적이며, 민간 협동적인 방향이 보다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역에서의 통합구축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탈북자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살 수 있다는 점 자체가 갖는 의미도 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한국 사회의 사회 통합 부족의 결과라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심도 깊은 사회적 정책적 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난민으로서의 탈북자들의 문화적응 과정의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에 입국한 지 3년 미만의 대상자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미국으로의 정착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초기 정착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미국 정착이 시작된 지 5년이 안된 상태였으며, 이들의 장기적 적응 과정에 대하여 살펴볼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연구의 초점이 정착 과정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연속적 관점에서

볼 때에 유랑민에서 정착민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착의 초기 과정 뿐 아니라 정착 후 이들의 정체성의 형성과정, 생존적 삶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고 문화적응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들이 다문화적 상황에서 자신들의 국가적·민족적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형성해나갈 것인지 또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게 될 탈북자들의 삶의 적응 과정의 주요 과제들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욕구의 결핍과 채움의 과정으로 개념화하여 그 결과를 제시해 보았다. 대단위 탈북이 이루어진 지 10여 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탈북자들이 경험하는 삶의 반경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너무 많은 결핍 속에 살아온 탈북자들에게 있어서 단지 생존과 안전을 위한 장치만으로는 충분치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한다고 볼 때에 이러한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문화를 도출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남한 사회에서 반감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탈북자들의 소리와 타국에서의 적응에 있어서 수월점 등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미에서 국내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의 탈북자들의 삶과 연결된 요인들을 파악해보고 도출해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로 흩어질 탈북자들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나혜, 2006, “남한 내 탈북이주민 대학생의 정체성과 생활경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금명자·권해수·이희우, 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95-308.
- 김미령, 2005, “북한 이탈주민들이 인지한 적응의 어려움과 극복자원이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0: 95-125.
- 김연희, 2006, “A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Mental Health An Application of a Stress Process Model”,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연희·조영아·유시은, 2010, “장기 정착 새터민의 빈곤특성 연구: 남한 빈곤층과의 비교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1(1): 195-218.
- 김영하, 2009, “새터민의 지역사회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한정치학회보』, 16(20): 95-125.
- 김종국, 2007, “새터민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동, 2010,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관계에서 탈북 후기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9(9): 277-296.
- 김현경, 2009, 『현상학으로 바라본 새터민(탈북이주자)의 심리적 충격과 회복 경험』, 과주: 한국학술정보(주).
- 노용구, 2012, “새터민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한국체육학회지』, 48(1): 603-611.
- 유시은·전우택·조영아·홍창영·엄진섭, 2005,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3년간 사회적응 추적연구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생활과 교육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9(1): 73-105.
- 유영권, 2005, “탈북자들의 적응 스트레스와 목회 상담적 대처방안”,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77-220.
- 윤인진·이진복, 2006,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과제: 북한 이주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7(1): 41-92.
- 이동성·김영천, 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20(2): 1-26.
- 임효진, 2010, “미국 난민 및 이민자들의 복지 혜택 감소”, 통신원 소식(2010-8), IOM 이민정책연구원.
- 전명희, 2011, “새터민 아동-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8(1): 101-123.
- 전명희·윤지예·송근주, 2010,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기독교 신앙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동저널』, 8: 169-201.
- 전우택·윤덕용·엄진섭, 2003,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생활 실태조사 - 2001년도 553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7(1): 155-208.
- 전우택·유시은·이연우, 2011,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유형”, 『통일정책연구』, 20(2): 1-36.
- 정진경·양계민, 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조영아·김연희·유시은, 2009, “남한 내 7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21(1): 329-348.
- 조정아·임순희·정진경, 2006,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 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통일연구원.

- 채정민·김중남, 2004, “북한 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1): 41-63.
- 최승호, 2010, “북한 새터민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정치정보연구』, 13(1), 161-190.
- 경향신문, 2012, “중국 매년 수천 명씩 북송 추정”, 2012년 2월 28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282243015&code=91)
-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2008, “영국 정부 지난해 영국 망명 신청 탈북자 415명”, 2008. 3. 17. (<http://www.voakorea.com/content/a-35-2008-03-17-voa25-91312519/1313444.html>)
-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2011, “영국, 지난해 탈북자 망명 허용 없어”, 2011. 3. 1. (<http://www.voanews.com/korean/news/korea-ek-117187013.html>)
-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 2012. 5. 10. (http://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usdefectors-05102012152435.html)
- Berry, J. W., 1986, “The acculturation process and refugee behavior”, In *Refugee Mental Health in Resettlement Countries*, eds. Williams, C. I. and Westermeyer, J. New York: Hemisphere.
- Berry, J. W., 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7: 615-631.
- Chang, Y., Kurlantzick, J., Lankov, A., and Mason, J., 2006, *The North Korean Refugee Crisi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sponse*, U. 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Denzin, N. K., 1978,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New York: McGraw-Hill.
- Glaser, B. G. and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 Jeon, W. T., 2000, “Issues and problems of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an in-depth interview study with 32 defectors”, *Yonsei Med. Journal*, 41(3): 362-371.
- Lankov, A., 2004, “North Korean Refugees in Northeast China”, *Asian Survey*, 44(6): 856-873.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 Sam, D.L. and Berry, J. W., 2006, *The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Cambridge.
- Strauss, A. and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Sage publications.
- Suh, J., 2002, “North Korean Defectors: Their Adaptation and Resettlement”, *East Asian Review*, 14(3): 67-86.
- UNHCR, 2003, *Refugees by numbers 2003 edition*, www.unhcr.ch/.
- Williams, C. L., and Berry, J. W.,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46: 63-641.

North Koreans' Lives in the United States

Jun, Myung Hee

(Handong Global University)

Since the U.S. government officially accepted North Korean(NK) as refugees starting in 2006, about 120 North Koreans have come to and been living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little is known in regard to what the North Korean refugees need for a qualify lif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ssential experiences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settled in the United States after escaping North Korea. Research inquiries are why North Korean refugees have chosen the United States for their settlement, and how they ar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Data were collected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NK refugees. For data analysis, grounded theory approach by Strauss and Corbin(1998) was employed. The data analysis identified the central phenomenon, protective and risk factors, and core actions and consequences of NK refugees' adjustment in the U.S. The central phenomenon was "voluntary choose to come to the U.S." The core action and consequences in the process of their adjustment were 'searching for the meaning of life,' and 'achieving acculturation.' The findings may provide deeper understanding on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U.S. and implications for how to help them adjust well in the society.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 in the United States. cultural adaptation,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논문 접수일 : 12. 07. 30, 심사일 : 12. 08. 19, 게재 확정일 : 12. 10. 07]